

국제금융시장 4월 동향 및 5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 영 교 (yoonyk@kdb.co.kr)
양 서 영 (syeeong@kdb.co.kr)

- ◆ **(환율)** 4월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5월에는 달러 약세 흐름 예상되나, 무역적자 지속으로 환율 하락 폭 제한적일 전망
- ◆ **(금리)** 4월 주요국 국채금리는 경기둔화 우려 감소,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하였으며, 5월은 FOMC, ECB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 변동할 전망
- ◆ **(주가)** 4월 주요국 주가지수는 상승세를 보였고, 5월에는 주요국 금리인상 추이, 기업 1분기 실적발표 및 중국 경제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변동할 전망

□ 4월 주요 경제·금융 동향 : 한은은 경기둔화 우려 및 물가 안정 상황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기존보다 하향

- 한국은행은 금통위(11일)에서 기준금리 동결(3.5%)
 -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23.3월 4.2%)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된 가운데, 수출 부진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3.2월 예상치(1.6%)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 단, 이창용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중장기 목표(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금리 인하 논의는 부적절함을 밝혀 시장의 완화 기대 차단
- 美 주요 경제지표 안정 속 중소지역은행 이슈 재부각
 -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락폭을 확대(6.4%→6.0%→5.0%)한 한편 월간 신규고용의 증가세가 둔화(32.6만→23.6만)되는 등 주요 경제지표에 금리인상 효과가 가시화
 -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1분기 말 예금잔액이 급감(전분기대비 △40%)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주요 은행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에 신용경색 우려 반영
- IMF는 13일 WEO(세계경제전망)을 통하여 '23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하향
 - '23.1월 전망치인 1.7%보다 낮은 수치이며, 반도체 업황 부진이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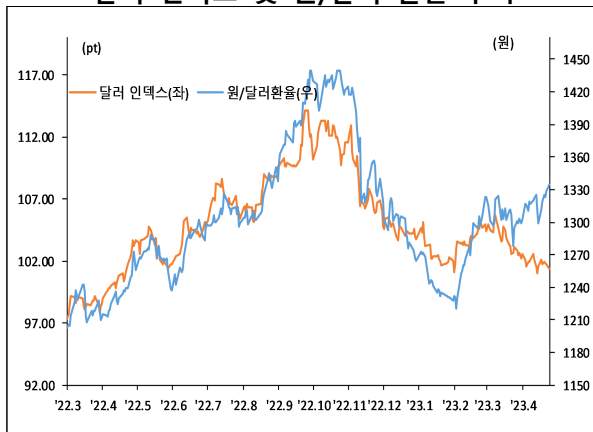
□ '23.5월 주요 경제·금융 이벤트

- 미국, 5월 FOMC(2~3일) : 연준은 지역은행 문제를 개별 은행의 경영 실패로 인식.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고용을 근거로 기준금리 25bp 인상 전망. 다만 6월 이후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
- 한국, 금통위(25일) :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미국 금리인상 사이클도 마무리 국면이고, 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률 둔화, 수출 부진 등 경기둔화로 인하여 금리 동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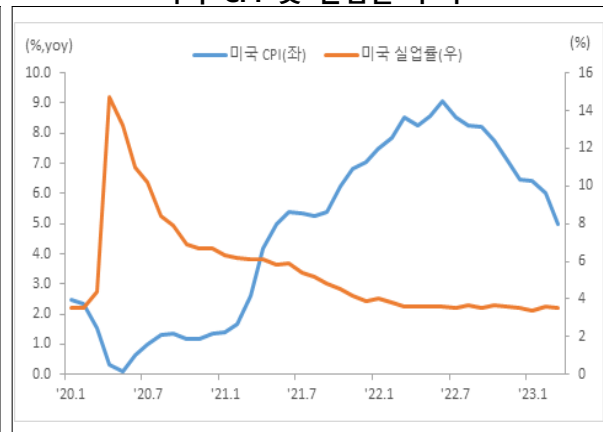
□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

- (환율) 4월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인하여 소폭 상승하였으며, 5월은 미국 금리인상 사이클 마무리, 유로존 긴축 지속 등으로 점진적인 달러 약세 흐름 예상되나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으로 환율 하락폭 제한적일 전망
 - 4월 달러인덱스는 완화된 FOMC 결과, 양호한 유럽경기 및 이에 따른 ECB 긴축 지속 기대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원/달러 환율은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엔화 약세 등에 동조화되며 상승함
- * 달러/엔: 130.85(3.26) → 132.41(4.3) → 133.7(4.14) → 134.69(4.19) → 134.15(4.25)
- 5월 환율은 달러 약세 기조 속에 주요 경제지표 결과와 수출 경기 전망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방향성을 보일 전망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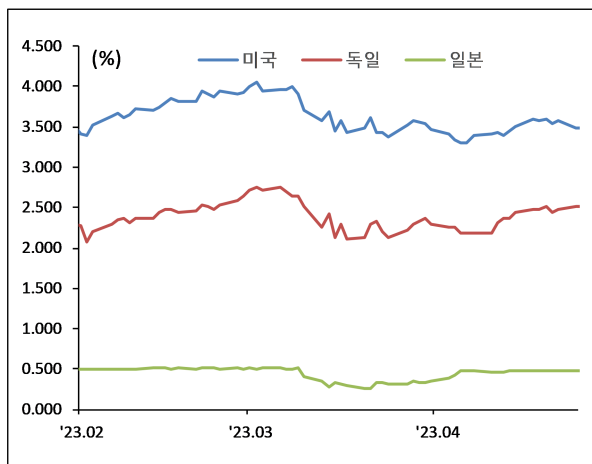
미국 CPI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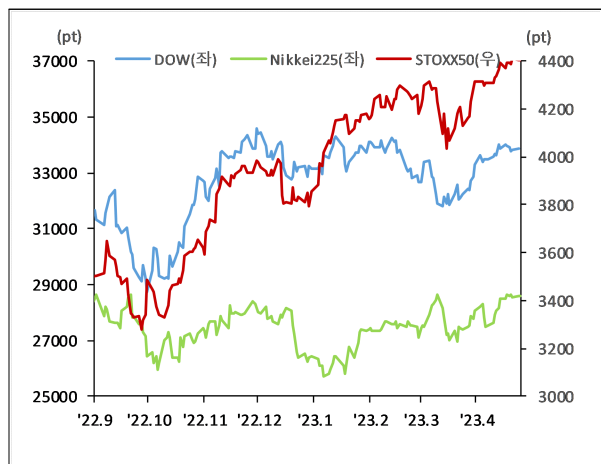
	'21년말	'22년말	'23.3월말	'23.4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1,188.8	1,264.5	1,301.9	1,334.8	+2.53%
달러 인덱스	96.14	103.49	102.60	101.34	△1.23%

- (금리) 4월 주요국 국채 장기금리는 경기둔화 우려 감소,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5월은 미국 부채한도 협상 진전 여부, ECB, FOMC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결과에 따라 변동할 전망
 - 4월 미국 은행들의 양호한 실적발표, IMF의 미국경제성장률 상향 전망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 감소했으며, 유로존의 고물가 및 양호한 경기 등으로 긴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함
 - 5월 시장금리는 FOMC,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미국 부채한도 협상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미국 금리 상승 리스크 상존
- (주가) 4월 주요국 주가지수는 상승세를 보였고, 5월에는 주요국 금리인상 추이, 기업 1분기 실적발표 및 중국 경제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변동할 전망
 - 4월은 미국 CPI 둔화(+5.0%)로 긴축 우려 감소하였고 금융권 불안 사태 진정, 일본 BOJ 완화 기조 지속 등에 따라 주요국 주가지수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5월은 기업들의 실적발표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23.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중국 경기 지속 반등 시 긍정적인 영향 미칠 전망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추이



주요국 주가지수 추이



	'21년말	'22년말	'23.3월말	'23.4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1.5101	3.8748	3.468	3.479	+1.1bp
독일채 10y	-0.1770	2.5710	2.292	2.508	+21.6bp
일본채 10y	0.0710	0.4220	0.351	0.480	+12.9bp
다우존스	36,338.30	32,875.71	33,274.15	33,875.40	+1.81%
유로 Stoxx 50	4,298.41	3,808.82	4,315.05	4,401.80	+2.01%
Nikkei 225	28,791.71	26,340.50	28,041.48	28,593.52	+1.97%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